

# ‘질문법’을 활용한 텍스트 읽기 교육

— 영남대학교 <명저읽기와 글쓰기>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배혜진\* · 손미란\*\*

## || 차례 ||

- I. 텍스트 분석을 통한 읽기 교육의 필요성
- II. 텍스트 분석 대상 및 방법
- III. 형식적 관점의 텍스트 분석
- IV. 내용적 관점의 텍스트 분석
- V. 질문법을 활용한 텍스트 읽기 교육의 효과
- VI. 결론

## 【           】

한국의 대학 글쓰기 교육은 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세부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텍스트 ‘읽기’를 통해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른 후 이를 새롭게 표현하는 능력(‘쓰기’로 대표되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명저읽기와 글쓰기> 역시 명저로 분류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편의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글쓰기 강좌에서 읽기를 온전히 학생들 몫으로 돌리고 쓰기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는 없다.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교수자 자신의 사고를 배제한 채 학생들이 스스로 텍스트를 읽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읽기 단계에

---

\* 공동저자,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강사

\*\* 공동저자, 진주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모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지정한 활자 매체로서의 일차적 텍스트는 '소설'이다. 문학의 양식 중 하나인 소설은 실제적 사건과 허구적 사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텍스트이다.

본고의 최종목적은 다양한 관점으로 만들어진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수행한 읽기 사례를 토대로 '텍스트 분석을 통한 읽기 교육의 모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제어 : TEXT 분석, 읽기, 읽기-쓰기 통합교육, 질문

## I. 텍스트 분석을 통한 읽기 교육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손쉽게 어느 곳에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렸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형식 또한 다양해졌다. 그래서 한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소재를 모으는 방식 또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몇 번의 검색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얻은 글쓰기의 소재들은 깊이가 없고 온전하게 필자 자신의 글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방' 형식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책'으로 불리는 활자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한편의 책, 즉 한편의 텍스트를 온전히 읽고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사고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정이며 대학에서 학문적 담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대학 글쓰기 교육은 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세부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텍스트 '읽기'를 통해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른 후 이를 새롭게 표현하는 능력('쓰기'로 대표되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읽기-쓰기 통합 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각 대학의 글쓰기

강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명저읽기와 글쓰기> 강좌를 사례로 연구한 논의는 박준범·김정화(2010), 김원준(2011), 김연주(201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명저읽기와 글쓰기>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영남대학교 글쓰기 강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논의로 확장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한 강좌라 할지라도 상세한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은 상기해볼 만하다.<sup>1)</sup>

이때 본고는 텍스트 읽기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윤재연은 『대학 글쓰기에서의 읽기와 쓰기 통합 방안 모색 - 설득 텍스트의 읽기-쓰기 통합 지도를 중심으로』(2014)에서 설득 텍스트의 읽기-통합 지도 방안의 모색을 위해 신문 사설을 이용한 바 있다. 윤재연은 설득 텍스트의 읽기-쓰기 통합 과정에서 대상 텍스트는 비평적 대상인 동시에 모방의 대상이며, 새로운 텍스트를 산출하는 근간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읽기 자료는 모방의 대상이 아닌, 사고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해석(혹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전환’이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 구조와 그들에게 제공되는 문식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맥락에 맞게 읽기-쓰기 관계를 설명하는 방향”,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안에 놓여 있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 바로 글쓰기 연구의 ‘사회적 전환’이다.<sup>2)</sup> 이는 쉽게 말해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맥락이 학습자들의 사고확장에 큰 영향을 줄을 말한다. 그러므로 읽기 자료는 모방의 대상이되 좋은 분석

1) 이 외에도 대학 읽기와 쓰기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에 허남영, 정인모의 『<고전읽기와 토론> 강좌에서의 읽기모형 개선 방안』(2014)과 고영진의 『대학 작문교육의 외연 확장을 위한 비평적 읽기의 제안』(2014)을 들 수 있다.

2) 김미란, 『대학의 읽기-쓰기 교육과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텍스트적, 수사학적, 담론적 수준의 통합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8, 2012, p.48.

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좋은 분석의 자료가 주어진 환경의 제시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읽기-글쓰기의 영역에서 매체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어떤’ 매체를 ‘어떻게’ 읽게 하고 재구성하게 하는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글쓰기 기초자에게 그저 주어진 ‘읽기 자료’는 말 그대로 읽어야 할 대상이자 그대로 옮겨 써야 할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본고가 고민한 끝에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서의 ‘질문법’은 여기서 발견된다.

글을 읽으며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은 사고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본고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 첫 단계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이다. 이 단계를 몇 번 거친 이후에는 학생들 스스로 질문지를 만들고 학생들 간에 상호 답변을 하는 방식을 활용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 II. 텍스트 분석 대상 및 방법

본고가 지정한 활자 매체로서의 일차적 텍스트는 ‘논증적 글’과 ‘소설’이다.<sup>3)</sup> 윤재연(2014)에서와 같이 대학 읽기 교육의 도구로서 논증적 글과 같

3) 김미란은 『대학의 읽기-쓰기 교육과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텍스트적, 수사학적, 담론적 수준의 통합을 중심으로』(2012)에서 모둠 활동을 기본으로, 대중매체 읽기(광고 읽기)를 통한 글쓰기 모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매체가 텍스트로서 읽기를 전제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매체 읽기와 쓰기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읽기 활동에서는 1차적으로 ‘활자 매체 읽기’가 활용도 측면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읽기 자료, 즉 활자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은 비문학 글들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고 또한 마찬가지로 비문학 텍스트를 활용하고자한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문학 텍스트도 활용하고자한다. 문학의 가장 대표적 양식인 소설은 '문학'이 가지는 특징을 집약한 형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문학은 픽션(fiction, 허구)이라는 의미에서 '상상적인 글'로 정의된다. 하지만 '사실'과 '허구'라는 구분은 문학 범주를 가리키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

본고가 주목하는 문학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적 사건과 허구적 사건의 조합이 만들어낸 세상을 해석하는 힘, 독자는 알레고리화된 언어를 해독함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읽을 수도 있다. 본고는 영남대학교 기초교양 <명저읽기와 글쓰기> 수업 중 활용되는 텍스트 중 하나인 제레미 레프킨의 『엔트로피』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논증적 글과 소설에 해당한다.

영남대학교 글쓰기 기초 교양인 <명저읽기와 글쓰기>는 '읽기-토론-글쓰기'가 연계된 통합 글쓰기 수업이다. 종합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글쓰기를 복합적 사고로 연계시키기 위해 읽기, 토론의 과정이 글쓰기 사전에 수행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핵심은 글쓰기에 있다. 하지만 본고가 본 논문에서 중시여기는 부분은 글쓰기와 연계된 읽기의 독자적인 해석 행위에 있다.

질문법은 존 피터스의 읽기 중심 모형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적용시킨 김미란<sup>4)</sup>의 접근 방법을 일부 수용하였다. 존 피터스는 '정서적 관점, 윤리적 관점, 수사학적 관점, 논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라는 다섯 가지 관점에 따라 텍스트를 읽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능동적인 읽기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sup>. 김미란은 존 피터스의 다섯 가지 접근법을 학생들이 구체적

4) 김미란, 「다섯 가지 텍스트 해석 방법을 활용한 읽기 중심 교육 모형의 개발」, 『대학작문』 5, 대학작문학회, 2012.

으로 익혀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쓰기로 전환시키는 읽기-쓰기 교수법으로 활용하였다. 존 피터스의 다섯 가지 관점은 선형적으로 나열될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형식-내용으로 단계화 할 수 있다.

형식	내용
정서적 관점 수사학적 관점	윤리적 관점 논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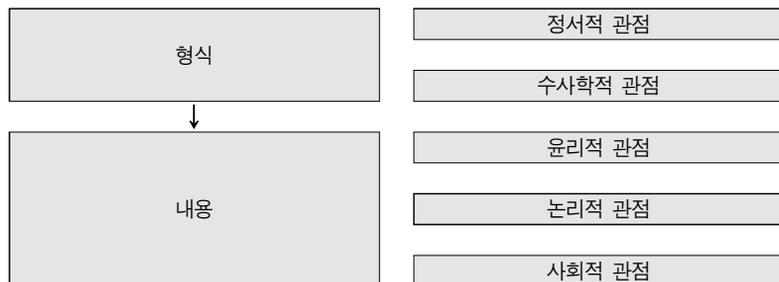
존 피터스의 다섯 가지 관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서적 관점’은 텍스트의 분위기와 필자의 서술 태도, 독자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저자가 어떠한 글쓰기 장치들을 선택했고 이것이 독자들과의 감정에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윤리적 관점’은 텍스트의 바탕이 되는 저자의 이상(신념)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수사학적 관점’은 텍스트의 형식과 스타일에 초점을 두고 장르적 특징과 글을 조직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논리적 관점’은 저자가 다룬 쟁점은 무엇인지, 이 쟁점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점’은 텍스트를 사회와 관련지어 사회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들 중 ‘정서적 관점’과 ‘수사학적 관점’은 글의 형식적인 측면에 해당하고 ‘윤리적 관점’, ‘논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글의 내용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존 피터스는 다섯 가지 관점 각각에 어울리는 질문법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섯 가지 관점 각각에 대해 설명한 후 이 관점에 따라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고만 교육한다면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각각의 관점에

5) 위의 글, pp.76-77.

따라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답하면서 텍스트를 읽게 한다면 학생들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텍스트를 분석하게 되고 이러한 분석은 불분명하게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텍스트를 분석할 때 다섯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이 단계화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섯 가지 관점은 크게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관점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 단계로 제시하였다. 윤리적 관점이나 논리적 관점은 저자와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관점은 저자나 텍스트에서 나아가 현대 사회로까지 시선을 돌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남대학교의 <명저읽기와 글쓰기> 강좌가 ‘명저를 현재적 가치로 재 해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본고는 2015학년도 2학기 <인문계열 명저읽기와 글쓰기> 1강좌, 2016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명저읽기와 글쓰기> 2강좌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법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을 적용해보았다.<sup>6)</sup>

6) 대상 강좌에는 총 11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책을 읽은 후 본격적인 책 해제나 토론, 글쓰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행학습’으로써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질문지 자체가 많은 생각을 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완성하기 어려웠고, 시간 배분의 어려

### Ⅲ. 형식적 관점의 텍스트 분석

형식적 관점은 텍스트 혹은 저자의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저자 자신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제를 드러내기에 성공적이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외연에 해당하는 형식을 분석해보는 것은 읽기 텍스트의 형식적 전략을 파악함과 동시에 나아가 앞으로 학생들이 쓰고자 하는 ‘자신의 글’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명저읽기와 글쓰기> 수강 학생들은 읽기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를 내면화 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논증적 글쓰기를 하게 된

음으로 강의 시간 중에 진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과제로 제시하였다. 3, 4장에서 사례로 제시한 질문지는 ①최대한 모든 항목을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②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선정하였다. 119명의 학생들의 질문지, 즉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은 표현이나 예시의 차이만 보일 뿐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은 비슷했다. 그래서 본고에서 제시된 예시들은 119명의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읽기 텍스트	대상 인원			
		전공	학년		총 인원
형식적 관점	『엔트로피』	건설시스템	1학년	45명	54명
			4학년	9명	
		식품영양	1학년	32명	33명
			4학년	1명	
내용적 관점	『멋진신세계』	인문자율 전공	1학년	32명	32명

\* 건설시스템에서 개설된 글쓰기 강좌를 수강한 54명의 학생들 중 44명은 건설시스템을 전공하는 1학년 학생들이었고, 1명은 자연자율전공이었다. 나머지 9명은 건설시스템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들이었고, 1명은 첨단기계전공이었다.

\* 식품영양학과에서 개설된 글쓰기 강좌를 수강한 33명의 학생들 중 32명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1학년 학생들이었고, 2명은 자연자율전공이었다. 나머지 1명은 첨단기계를 전공하는 4학년 학생이었다.

\* 학생들이 응답한 실제 질문지는 부록에서 형식 질문지와 내용 질문지 각각 상, 중, 하로 3개씩 제시하였다.

다. 인문계열에서는 『오래된 미래』, 이공계열에서는 『엔트로피』로 읽기-쓰기를 진행한 후에 두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멋진 신세계』로 읽기-쓰기를 진행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본고는 우선적으로 형식적 관점의 질문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텍스트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형식적 관점의 질문법은 저자의 수사법을 파악함으로써 저자의 핵심주장의 파악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주장문의 성격을 띠는 텍스트일수록 형식적 관점의 질문법은 용이성이 크다. 둘째, 수사법 확인을 통한 텍스트 분석법은 추후 따라올 내용적 분석의 기본틀을 마련해줄 수 있다. 즉 논증적 글쓰기의 성격이 강한 『오래된 미래』나 『엔트로피』의 형식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후에 진행될 문학 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우선적으로 『엔트로피』를 대상으로 형식적 관점의 질문법을 적용해보았다.

## 1. 정서적 관점

‘정서적 관점’은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단어와 문장의 특별한 선택), 텍스트의 분위기와 필자의 서술 태도, 독자에 대한 필자의 태도 등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엔트로피』를 정서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sup>7)</sup>

---

7) 영남대학교 명저읽기와 글쓰기 강좌에서는 계열의 특성에 맞게 텍스트를 선정하였지만,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와 같이 여러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된 텍스트도 있다. 『엔트로피』와 달리 『멋진 신세계』는 소설이다. 두 텍스트의 장르적 차이는 크지만 교수자는 글의 특성에 맞게 ‘질문법’을 구성할 수 있다. 『멋진 신세계』를 정서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질문법’은 아래와 같다.

1. 저자는 소설에서 어떠한 감정적 갈등을 만들었는가? 이 갈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나?

1. 저자가 주장을 위해 사용한 갈등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며, 무엇입니까?  
이는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2. 저자가 만들어낸 갈등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습니까? 해결이든 미해결이든 이는 저자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성공적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3. 텍스트의 분위기와 필자의 서술 태도는 어떠합니까?

질문1은 텍스트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저자가 설정한 갈등을 파악하는 질문이다. 『엔트로피』와 같은 논증적 글쓰기는 주로 문제의 원인, 사례, 해결방안 등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질문1의 갈등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1에서는 갈등 자체보다 이것이 글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질문2는 질문1의 갈등 해결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이다. 『엔트로피』에서는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 따라 해결 방안을 갈등의 해결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질문3은 텍스트의 전체적 분위기와 필자의 서술 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인데, 이는 글의 장르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엔트로피』를 질문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질문법은 텍스트 분석에 효과적인지 학생들의 과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 
2. 저자는 소설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인물을 설정하였는가? 이 설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었나?
  3. 저자는 소설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상황을 설정하였는가? 이 설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었나?
  4. 저자가 독자에게 환기하고자 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5. 존은 세익스피어의 작품 구절로 대화를 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어떤 효과를 얻었나? 그 방식에 공감하는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질문1에 대한 결과이다.

- A: 기계론적 세계관 VS 엔트로피적 세계관. 작가는 세계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현대의 관점인 기계론적 세계관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엔트로피적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엔트로피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잘 나타냈다.
- B: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엔트로피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간의 갈등을 사용함으로써 엔트로피적 세계관으로 회귀하는 것이 미래의 삶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설득하는 효과를 얻음.
- C: 인간과 환경과의 갈등을 나타내었고 결국 같이 공생해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잘 부각되었고 해결책의 실행동기를 독자들에게 잘 부여하였다.
- D: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며, 인간의 기술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갈등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 E: 제레미 게프킨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소재로 삼았다. 크게는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세부적인 갈등으로 인간과 기계, 인간과 인간,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있다. 이 밖에도 사상의 갈등, 집단의 갈등, 교육의 갈등, 에너지 갈등 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부각할 수 있었고, 엔트로피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갈등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A~B와 같이 기계론적 세계관과 엔트로피적 세계관 둘째, C~D와 같이 인간과 자연을 갈등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E와 같이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기도 하였다. 질문1에서는 갈등 대상과 함

게 그것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학생들은 이러한 갈등 설정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나아가 『엔트로피』에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엔트로피적 세계관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즉, 질문1은 갈등은 문제의 원인, 나아가 그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질문1에서 만들어낸 갈등의 해결에 대한 질문인 질문2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 A: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고, 기술 발전으로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으므로 갈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나, 에너지 고갈, 환경 문제 등에서 현재의 삶에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져가므로 저자가 주장한 엔트로피적 세계관이 설득력 있으므로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 B: 글의 초반에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엔트로피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을 다루었으나 최종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자연을 사랑하고 실존하지는 것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으나 작가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었다.
- C: 갈등은 미해결되었지만 충분히 전략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세계관을 이해시켰고 자원 고갈의 해결책들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 D: 본인 주장은 해결, 하지만 우리 세상은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상황.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다해서 실패한 글쓰기라고 볼 수 없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우리 세상은 저자가 말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했기 때문이다.

87명의 학생들은 모두 갈등이 미해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현

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1에서 분석한 '기계론적 세계관 vs 엔트로피적 세계관, 인간 vs 자연'이라는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파악한 것이다. 즉, 학생들은 텍스트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을 갈등 해결의 여부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텍스트 읽기가 텍스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고 학생들 스스로 텍스트의 문제의식에 대해 내면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질문2 역시 갈등의 해결 여부보다도 그 전락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생들은 모두 갈등은 미해결 되었지만, 저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고 저자가 제시한 해결방안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갈등의 해결 여부는 현실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현실에서 해결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충분히 문제의식을 일깨워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성공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이끌어 가는 저자의 서술 태도와 관련된 질문3 "텍스트의 분위기와 필자의 서술 태도는 어떠합니까?"에 대한 결과이다.

- A: 책의 내용이 어려운 편이라 분위기가 딱딱하지만 여러 사례들로 쉽게 풀이 간 것 같다. 또한 필자는 고엔트로피에서 저엔트로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확고한 것 같다.
- B: 텍스트의 분위기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엔트로피 법칙을 이해시키는 부드러운 설득적 분위기가 느껴졌음. 필자의 서술 태도는 온유하나 강한 신념이 느껴졌음.
- C: 단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있고 서술자 또한 주관적 생각을 객관성을 더해 확신에 차고 읽는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길 바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D: 텍스트의 분위기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내용도 굳어 있을 뿐 아니라 저자가 책을 읽는 독자를 혼내는 느낌을 받았다.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한결 같은 주장을 예시를 통해 설명했고 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라 라는 완곡한 느낌도 받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엔트로피』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딱딱하며, 제레미 레프킨의 서술 태도는 자신의 주장에 객관성을 부여하여 확고하게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논증적 글쓰기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엔트로피』 역시 저자의 주장을 객관적인 논거들을 바탕으로 객관화하는 논증적 글쓰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나 이 텍스트는 현재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저자와 독자가 모두 진지한 태도로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서적 관점은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논증적 글쓰기는 질문3의 분석과 같이 건조하고 진지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소설이나 시, 수필과 같은 텍스트에 비해 독자의 다양한 감정을 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질문법을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논증적 텍스트에서도 충분히 텍스트와 저자, 그리고 독자 자신의 정서적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는 ‘갈등’이라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2. 수사학적 관점

수사학적 관점은 정서적 관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글의 구성적 형식과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텍스트가 구성되는 방식에 중점을 두면

서 장르적 특징(하위 장르적 특징 포함)과 글을 조직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도 수사학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김미란의 경우, 수사학적 관점으로 글을 조직하는 다양한 방식, 즉 '묘사, 서사, 정의, 비교/대조, 분류, 예시, 요약, 설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글의 장르와 어울리는가를 질문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체화된 질문은 수사학적 스타일이 효과적으로 얼마나 잘 선택되어 그 효과를 잘 거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글쓰기가 언어로 수행된 의사소통임을 생각할 때, 수사학은 꼭 고려해야할 지점이다. 이에 본고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sup>8)</sup>

1. 『엔트로피』의 장르는 무엇입니까?
2. 글의 조직 방식은 어떻습니까(묘사, 서사, 정의, 예시, 분류, 요약 등)? 이는 『엔트로피』의 장르에 적합하며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입니까?
3. 글의 문체적인 특징은 어떻습니까(격식적, 비격식적, 일상적)? 이는 텍스트의 장르에 적합하며,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입니까?
4. 저자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질문1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 결과이다.

A: 독자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설명하는 설명문이나 주장문이라고 생각한다.

---

8) 정서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수사학적 관점 또한 텍스트의 특징에 맞게 질문을 수정할 수 있다. 이때 본고가 『멋진 신세계』를 수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질문법'은 아래와 같다.

1. 멋진 신세계의 조직방식은 어떠한가?
2. 글의 문체적 특징은 무엇인가?
3. 저자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가 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B: 주장하는 글
- C: 사회학
- D: 주장하는 글, 철학?
- E: 설명하는 글+주장하는 글+비판하는 글
- F: 엔트로피는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 정당성을 증명하거나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저자 자신의 의견을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글 이므로 논설문으로 보여집니다.
- G: 논설문(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

대부분의 학생들은 『엔트로피』의 장르를 주장문, 설득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목할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장문의 속성을 “주관성”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C, D 처럼 ‘철학’, ‘사회학’이라 말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엔트로피』가 비문학으로서 어떤 유형의 글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수용자로서 독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생각해야 한다. 주장문이라는 인식 하에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질문1을 통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받아들인 텍스트의 장르를 체크함으로써 그 읽기의 태도를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 제시하진 않았지만, 기타로는 ‘문학’, ‘공학소설’이라고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인지사항이 내용을 파악할 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확인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1의 연장선에서 질문2가 나오는데 다음은 질문2에 대한 결과이다.

- A: 정의, 예시, 요약. 접해보지 못한 단어(예로들면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

등)를 정의해주었고,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어주었고 요약도 적합했기 때문에 주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B: 주로 예시를 많이 사용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장르에 적합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적절한 예시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필자의 주장이 효과적으로 드러났다.
- C: 정의 - 엔트로피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예시 - 개념에 대한 예시를 드러낸다.  
요약 - 길게 서술한 내용을 간략히 제시한다.
- D: 글은 전체적으로 큰 부분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담고 있는 식으로 쓰였다. 이는 엔트로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여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역시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엔트로피』를 설명문이나 주장문으로 인식하는만큼 조직방식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질문2를 통해 학습자가 내용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 형식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분이 가지는 예시나 사례들이 주요논거와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질문3은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질문이다. 우선 학생들의 분석결과를 보자.

- A: 독자에게 추상적인 엔트로피적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는 다소 딱딱할 수 있으나,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글로써 비격식적 문체였다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주제를 잘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다.

- B: ‘-이다’ 형식의 어느정도 격식을 차렸다고 볼 수 있는 문체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고엔트로피 사회에서 저엔트로피 사회에서 저엔트로피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적합한 것 같고 주제를 드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일상적 문체적 특징을 보였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
- C: 격식적 문체이다. 주장하는 글에서 조금 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객관성과 논리성을 어필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꾸짖는 듯한 느낌을 준다.
- D: 이 글은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설득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모습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문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주제에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글의 문체(style)를 읽는다는 것은, 글의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볼 때, 위의 답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엔트로피』 저자의 견해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엔트로피』를 주장문이라 인식하고 있는만큼 격식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부분은 일상적 혹은 비격식적 문체였다면 이 글이 본인들에게 크게 어필되지 못했을 거라 말했다.

질문2 속에 있는 두 번째 질문, “이는 텍스트의 장르에 적합하며,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입니까?”라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붙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글의 분위기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구성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형식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을 구분해서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세부적인 읽기가 결국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학적 관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부분은 ‘문장’이다. 이는 문법에 맞는가, 문맥에 적합한 문장과 단어인가, 각 문장 성분이 호응하는

가를 살피는 일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물론 문법의 올바름을 살피는 일은 저자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는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문법적인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사학적 영역이다. 저자가 의미구성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가는 저자가 처한 수사학적 상황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관련해서 본고는 질문 4를 제시했는데, 이 질문의 답을 통해 우리는 수용자로서의 독자는 어떤 수사법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은 질문 4에서 도출된 학생들의 다양한 결과이다.

- A: 엔트로피 법칙이 원래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하여 무질서를 의미하는 물리량인데 이 책에서는 단순한 물리법칙이 아니라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어서,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결과를 더 강조하는 것 같다.
- B: 저자는 과거에 존재한 크나큰 에너지 변화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를 "엔트로피 분수령"이라 정의하였다. 이 "엔트로피 분수령"이라는 단어는, 저자가 엔트로피 법칙을 사회에 적용시키고 독자들이 좀더 현대사회와 와닿게 느끼기 위해 사용하였다.
- C: 식민화단계/결정단계. 에너지 흐름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쪽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에너지 흐름이 감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식민화단계에서 결정단계로 가야한다고 표현한 것이 참신하게 느껴졌다.
- D: '사랑'이라는 단어를 저자가 새로운 의미로 창출하였다. 일상적으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좋아한다는 의미이지만 저자는 '사랑'을 배분다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 같다.
- E: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수사학적 관점의 텍스트 분석은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한 저자의 문체와 스타일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언어의 선택 문체는 저자가 처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으로부터 도출되는 또 다른 영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교수자는 인지한 후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질문4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역시나 질문4의 대답은 예상외의 대답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명확히 텍스트의 타이틀인 “엔트로피”를 제외한 다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교수자는 A와 B와 같은 답변을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C와 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보다는 숨어 있는 뜻을 가진 새로운 단어를 찾으려 하고 있다.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는 D, E 외에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들이 대부분 해결방안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에 교수자는 해당 학생의 사고를 좀더 확대해서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내용적 관점에 이러한 형식적 질문이 가지는 의미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 IV. 내용적 관점의 텍스트 분석

형식적 관점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의 성격이 강한 『엔트로피』를 대상으로 질문법을 적용시켜 보았다면, 내용적 관점은 문학 작품인 『멋진 신세계』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논증적 글은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이나 쟁점 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이나 사건 등 설정된 소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논증적 글보다는 문학 작품에서 내용적 관점을 찾아내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이 더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한 읽기 교육 방법이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 1. 윤리적 관점

윤리적 관점은 텍스트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글은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글 읽기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멋진 신세계』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 때문에 논증적 글에 비해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소설 속 인물, 상황 등을 통해 독자가 유추해 내야만 한다. 학습자들은 『멋진 신세계』를 읽는 과정에서 막연하고 불분명하게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사고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제시한 질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대답하면서 가능해질 것이다. 소설 『멋진 신세계』를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은 무엇인가?
2. 각각의 등장인물은 어떤 윤리적 이상(신념)을 가지는가?
3.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을 반영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4. 저자의 윤리적 이상을 잘 반영한 상황(사건)은 무엇인가?
5.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질문1과 질문5는 장르에 관계없이 모든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

만 질문2~질문4는 『멋진 신세계』가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다. 질문1~질문4까지는 소설을 읽고 저자의 숨어 있는 윤리적 이상(신념)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이라면, 질문5는 찾아낸 내용에 대한 독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학생들의 과제 수행 결과를 통해 윤리적 관점 다섯 가지 질문에 따라 『멋진 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질문1에 대한 결과이다.

- A: 과학기술 중심의 오만한 문명은 결국 인간파멸의 재앙을 불러온다고 생각한다. 즉, 그는 기계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진보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것이며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과학의 성과 앞에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 이를 비판하며 인간이 규격화된 상품처럼 취급되지 않고 정서적·감정적으로 성숙되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를 원한다.
- B: 디스토피아라는 모습을 통해 인간관계, 인간의 감성과 같은 것들이 물질문명의 발달을 통해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고 있다. 즉, 물질문명의 발전이 결코 낙천적이지만은 않다는 것.
- C: 각자의 자아로서 존재하는 ‘인간’에게는 무언가의 희생을 통해 얻은 안정과 행복보다는 진정한, 말 그대로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 값진 가치이다.
- D: 저자의 윤리적 이상은 과학기술의 발달에서도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싶어한다. 또한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E: 저자는 과학적인 발전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윤리적 이상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행동하며 자유주의를 지닌 인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저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의 핵

심은 '진정한 행복·자유 추구'라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낸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은 소설의 등장인물, 사건을 통해 유추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등장인물, 사건에 대한 이해도도 비슷한지 질문2~질문4를 통해 알아보자. 먼저, 질문2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 A: 존(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려 하며, 문명사회의 노예를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한다), 버나드(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념이 변화하는 교활한 인물이다), 왓슨(자신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없는 신세계의 체제에 대항하며 존과 가치관이 같다), 레니나(멋진 신세계를 순응하는 인물이다. 자신을 공유화된 상품취급하며 성생활을 즐긴다), 총통(자유가 통제되어 유토피아 세계 추구, 인간의 존엄과 자유억압을 통한 행복 추구)
- B: 존(신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저항자, 디스토피아적인 인물), 버나드(신체적 결합에 대해 가장 콤플렉스인 사람이지만 가장 신세계적인 인물), 레니나(완벽하지 못한 자유성에 만족하는 인물)
- C: 헨리 포스터, 레니나(신세계 속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것이라 믿으며 다른 삶을 꿈꾸지조차 않는다), 버나드(열등감에 휩싸여 진정한 자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신세계 권력을 누리려 하는 다소 이중적인 인물), 존, 헬름홀츠(신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며 '진짜' 자유와 행복을 갈망한다)
- D: 존은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 특히 자유의지를 중요시 여긴다.
- E: 버나드(이 세계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이 멋진 신세계 속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함. 타인에게 있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함), 헬름홀츠 왓슨(예술적인 면을 통해 반복되고 똑같은 세계의 부조리를 표현), 레니나(멋진 신세계는 완벽한 곳, 유희와 소미는 당연한 것), 존(불행해질 권리를 얻길 바라고 인간은 자유주의를 누려야 한다)

『멋진 신세계』의 여러 등장인물들 중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낸 인물은 ‘존’이었으며, 그는 멋진 신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인물로 불행해질 권리를 얻길 바라고 나아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려 하며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헬름홀츠 왓슨, 버나드, 레니나, 총통 등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이상(신념)을 찾아냈다. 이들 중 ‘버나드’는 겉으로는 멋진 신세계 체제에 불만을 가진 인물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념이 변화하는 교활한 인물로 가장 신세계적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헬름홀츠 왓슨은 멋진 신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등장인물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은 질문3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질문3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 A: 존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저자가 버나드를 등장시킨 이유는 존을 등장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즉, 저자는 존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기가 지 많은 전제와 신세계의 배경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였다. 그만큼 존이 이 책에서 중요하며, 저자는 중요한 인물 존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던졌을 것이다.
- B: 존 이 글의 저자는 과학기술, 중앙 집권화, 문명 세계라는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글을 썼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존의 죽음으로 보여 주고 있다.
- C: 존 사실 존의 등장 이후로부터 저자의 신념이 거침없이 내보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세계 사람들로 부터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존’이라는 인물은 약물에 의한 행복, 정해진, 바꿀 수 없는 안정을 팽개치며 불행할 권리를 요구한다. 그 무엇보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인물.
- D: 저자의 윤리적 이상을 잘 반영하는 인물은 존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존은 수동적인 사회현실에 저항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E: 존이 그러하다. 존은 멋진 신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는 확연히 대조되

면서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인물이다. 왜냐하면 저자의 생각과 동일하게 '존'은 과학적인 진보에 있어서 나타나는 인간 노예화에 부정적이며 자유주의를 갈망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여기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을 반영하는 인물로 '존'을 꼽았다. 질문2에서 학생A는 헬름홀츠 왓슨 역시 존과 같은 윤리적 이상을 가진 인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저자, 존, 헬름홀츠 왓슨 이 세 인물은 모두 같은 윤리적 이상(신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은 왜 헬름홀츠 왓슨이 아닌 '존'을 저자와 동일시하였을까? 멋진 신세계 사람들에게 야만인으로 불리는 존은 신세계 사람들과 확연히 대조되는 인물이며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사라진 멋진 신세계가 잘못된 사회임을 '죽음'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존이라면 존이 보여준 소설 속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 역시 저자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문4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몬드와 존의 토론 부분이다. 몬드에 주장은 예술과 과학은 종교는 사회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그는 행복이 우선시되기 위해 자유가 통제되어 유토피아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존은 이에 반하여 멋진 신세계식 종교를 배척하고 정감과 자유와 도의성이 좀더 있는 세계를 원한다고 맞섰다. 또한 “문명인은 불쾌한 것을 참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저자는 몬드와 맞선 존을 통해 문명사회의 노예가 아닌 자유를 갈구하는 이상을 잘 반영한 것 같다.
- B: 존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사회에서 야만인(일반인)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가장 잘 보여 줬기 때문.
- C: 존과 무스타파 몬드 총통과의 대화 속에서 저자의 윤리적 이상을 발견했

다. 존은 신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자유를 가장한 억압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불청결, 질병, 불안, 고민, 노화 등 불행해질 권리, 즉 진정한 자유를 외쳤다.

- D: 저자의 윤리적 이상을 잘 반영한 사건은 존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E: 존과 총통의 대화 장면 중, 존은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한다.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갈망하며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을 갈구한다.
- F: 소마를 던지면서 독이라고 하는 장면. 미래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를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고 제 1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질문1부터 질문3까지는 학생들의 대답이 어느 정도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질문4에 대한 대답은 크게 ‘총통과 존의 대화(혹은 토론), 존의 죽음(자살), 존이 소마를 던지며 독이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나뉘었다. 소설 『멋진 신세계』의 후반부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총통과 존의 토론 장면은 멋진 신세계에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제한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고, 이에 반대하는 존의 윤리적 이상(신념) 역시 직접적으로 잘 드러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상황이 저자의 윤리적 이상을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꼽았다고 볼 수 있다. 『멋진 신세계』는 존의 자살로 결말을 맺는데, 학생들은 존의 이러한 죽음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잘못된 사회에서 개인의 윤리적 이상을 추구하는 개인의 최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였다. 혹은 이러한 죽음이 헬름홀츠와 같은 신세계 속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네 개의 질문들은 『멋진 신세계』에 나타난 저자의 윤리적 이

상(신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질문5는 스스로 찾아낸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에 대한 학생(즉, 독자) 개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 A: 저자의 이상에 동의한다. 현대사회는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진보로 우리를 안락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사회를 각박하게 만들며 사람과의 정을 상실하게도 하였다. 이것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속이 된다면 저자가 경고한 인간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하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문명화로 인한 안락보다는 저자가 추구하는 불편을 동반한 자유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와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자의 이상에 동의한다.
- B: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오직 과학 기술의 발전만이 옳다고 생각지 않으며 그에 따른 인간의 이해도도 같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과학의 노예가 되면 안되기 때문.
- C: 동의한다.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고 욕구이다. 원하는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가둬두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권리와 욕구를 철저히 짓밟는 일이다. 수갑을 차고 쇠창살이 쳐진 케이지 안에 들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 D: 동의한다. 나는 문명의 발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E: 나는 저자의 이상에 동의한다. 이 소설은 지극히 판타지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느꼈다. 이 소설은 1932년에 쓰여졌지만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과학적인 기술 발전이 인간을 노예화로 만들고 개인의 존엄성은 온데간데 없으며 찍어 낸 행동은 끔찍하다. 나 또한 전체주의 사회보다는 자유주의 사회가 우리를 더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모두 ‘인간의 진정한 행복, 자유 추구’라는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에 동의했다. 특히,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는 인간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지만 이것이 고도화되고 지속된다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상실되고 이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박탈당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억압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에 동의했다.

텍스트를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자세로 읽기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를 읽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야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읽기 텍스트를 왜곡됨 없이 이해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윤리적 관점에 따른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 2. 논리적 관점

논리적 관점은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이 드러나는 저자의 쟁점(문제 의식)을 이해하고 텍스트에서 그것이 어떠한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의 쟁점은 저자의 윤리적 이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지만 논리적 관점은 윤리적 관점과 다르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논리적 관점은 소설이라는 장르에서는 '개연성'에 속하는 부분이다. 소설에서 논리적 관점은 소설의 스토리를 위해 설정한 소재, 도구, 시대적 배경 등이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들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야만 윤리적 관점도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저자들은 특히 소설은 도구 설정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상징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소설 『멋진 신세계』를 논리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저자가 다루고 있는 쟁점(문제의식)은 무엇인가?
2. 쟁점에 도달하기 위해 설정한 소재, 도구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3. 저자가 던진 쟁점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4. 저자의 결론에 동의하는가? 저자의 결론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논증적 텍스트의 경우 저자가 던지는 쟁점, 그 쟁점을 해결하는 결론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소설은 스토리 속에서 간접적으로 쟁점이 제시되고 소설에서 사용된 소재나 도구들이 대립을 이루면서 쟁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질문1~질문3과 같은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질문4는 텍스트에서 제시한 쟁점의 결과에 대한 독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이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 학생들의 과제 수행 결과를 통해 논리적 관점에 따른 네 가지 질문에 따라 『멋진 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저자는 자신의 윤리적 이상(신념)인 '진정한 행복·자유'를 드러내기 위해 『멋진 신세계』에서 어떤 쟁점(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을까?

- A: 기계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진보가 모든 인간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하는 지경에 도달하는 비극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 B: 물질 문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쟁점.
- C: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긍정적(유토피아)인가 부정적(디스토피아)인가? 계속되는 변화는 인간을 위한 것이 맞는가?
- D: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유의지가 없는 삶.
- E: 개인의 모든 활동이 오로지 전체의 사회 안정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 문명이 자유주의를 억압하고 있는 이 세계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이다.

학생들은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인 ‘진정한 행복·자유 추구’와 대립되는 항은 ‘기계문명, 물질 문명, 과학의 발전’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멋진 신세계』의 기저가 되는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은 ‘진정한 행복·자유 추구’이지만 이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항목과 대립을 이루면서 더욱 더 문제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멋진 신세계』의 문명국은 인간을 생산하고 계급을 나누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까지 통제하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였고, 저자의 윤리적 이상(신념)을 잘 반영한 인물인 야만인 존이 살고 있는 사회는 문명국과는 정반대의 사회였다. 두 사회의 모습을 통해 ‘과학 기술 발전 vs 진정한 행복·자유’라는 쟁점을 극대화하였고 저자는 자신의 윤리적 이상(신념)을 잘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질문2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 A: 254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 어셈블리라인, 계급제도, 소마, 보카노프스키법, 포드교, 수면학습원리->인간을 인공적으로 생산과 함께 인간 개인의 취향과 태도와 행동양식 등을 조련 및 조절을 통해 사회에 순응하게 만든다.
- B: 인공수정, 유리 시험관 속 태아(기계화된 인간의 모습), 보카노프스키법(오직 도구로써의 인간의 모습), 허물화장터(결국 모든 것이 비료이며 참다운 인간 모습이 보이지 않음)
- C: 조금이라도 불안감이나 긴장감, 분노감 등의 감정이 느껴질 때면 다시 안정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아무렇게 얇게 입에 털어 넣는 ‘소마’, 소마는 신세계인들에게 불가피한 것이지만 존의 어머니는 소마를 과다복용하여 죽음에 이른다. 결국 인간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라 믿어 왔던 소마가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것. 우리는 우리의 과학적 성과 앞에 무릎 꿇게 되지는 않을까?
- D: 쟁점에 도달하기 위해 존의 자살을 설정하였다. 그 의미는 신세계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삶에 있어 스스로 선택한 것을 나타냄.

E: 사실 저자가 직접 말하고자 등장시킨 주인공은 존이다. 존을 소개하기 위해서 멋진 신세계라는 전제를 깔아놓았던 것이고 이 세계 속의 인간의 삶과 생활방식을 장황하게 늘어 놓았던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야만인이라 불리는 존에 대해 더 와닿게 하고 존이 갈구하던 자유주의를 전체주의와 대조하여 말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쟁점에 도달하기 위해 설정한 소재, 도구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지만 이들은 과학 기술의 진보를 잘 보여준 소재, 인간의 자유의지 억압을 잘 보여준 소재로 양분될 수 있다. 특히, 보카노프스키법, 계급제도, 소마와 같은 소재들은 과학 기술의 진보를 잘 보여주는 소재이면서 동시에 이들이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설정 외에도 학생들은 '존'이라는 인물, '자살'이라는 존의 선택이 중요한 소재라고 대답하였다. 야만인 '존'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며, 그러한 존은 불행을 느낄 때 소마를 먹으며 꾸며진 행복을 느끼는 문명국 사람들과 달리 불행을 느낄 때 죽음마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의 결말은 스토리 속에서 대립을 이루며 진행되어 오던 쟁점들이 끝을 맺는 방식임과 동시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질문3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A: 그의 자살은 기계문명과 인간성 보존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나타낼 수 있다. 또는 그의 자살이 이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적인 암시가 될 수 있다.
- B: 물질 문명과 계급 문명의 비참함. 즉 우리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 사랑, 믿음이라는 감정의 소중함.
- C: 디스토피아. 더 기술적이고 더 발전된 사회만을 꿈꾸는 우리는 이미 인간

의 존엄성과 권리를 조금씩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뛰어난 기술의 실현을 위해 인간을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지속적인 개발이 유토피아를 구현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는 걸어 온 길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D: 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살도 결정하게 된다. 존이 세상을 변화하거나 하지 않고 죽음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함.

E: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로 희생되는 모든 것이 과연 사회 안정을 정당화 할 것인가? 그로 인해 희생되는 허무감과 자유주의의 박멸로 인해 이 시계는 과연 유지될 것인가? 저자는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권리를 획득하여 사는 삶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 세계가 아닌 현재 세계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멋진 신세계』는 존의 자살로 결말을 맺는다. 존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학생들은 존의 자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였다. 첫 번째는 존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나 자유가 무시되고 있는 잘못된 사회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였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명의 비참함을 강조하였다고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존이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문명국에 저항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인 오히려 문명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과학 기술의 진보로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문명국 인들에게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의미를 강조하였다고 보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질문4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A: 동의한다. 존의 자살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저자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독자의 판단에 맡겨 우리의

상상력과 자유판단을 존중해 준 것 같다.

- B: 항상 진보적인 면모보다 인간다움의 중요성이 얼마나 가치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극적 결말을 통해 더욱 명확한 주제를 전해주었다.
- C: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온다면 결코 그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최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발전이 곧 인류의 불행과 억압, 즉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 D: 존이 자신의 죽음마저 선택하는 자유의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이런 인물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
- E: 동의한다. 과학적인 진보와 기술 문명의 발달이 사회 안정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러한 사회안정과 다른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이다. 총통과 존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난 작가의 의도에 지극히 동의하며 존의 말에 빚댄 방식은 감정이입을 하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멋진 신세계』의 결론 방식에 동의했고, 이러한 결론 방식이 과학 기술의 진보라는 명분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을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는 소설 속 사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관련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저자가 결말을 통해 얻고자 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글 읽기를 통해 독자들이 언제나 실제 텍스트와 같은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는 방관자적 독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적 독자로서 글을 읽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sup>9)</sup> 이 질문의 중요성은 학생들이 『멋진 신세계』를 읽고 결말을 통해 스스로

느끼는 의미에 있는 것이다.

### 3.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텍스트를 사회와 관련시켜 논의하는 것을 가장 중시여기는 관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를 자신과 세상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세상 읽기를 할 수 있다.

소설 『멋진 신세계』를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멋진 신세계』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설 속 사회는 현대 사회와 닮아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닮아 있는가?(사례)
3. 소설 속 쟁점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가? 그 사회적 갈등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질문1은 소설의 배경을 확인해봄으로써 팩트와 픽션 사이에 있는 역사적 의미를 담지한 텍스트의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 질문1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 결과를 보자.

A: 점점 더 첨단인 세계로 발전해가는 시대에 대한 걱정과 경고를 주는 책.  
기술과는 거리가 먼 옛날을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발전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이 시대가 놓치고 있는 인간 자체에 대한 자유와 존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9) Pichert, J. W., & Anderson, R. Cl(1977)., "Taking different perspectives on a st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pp.309-315에서 독자 입장에서 텍스트를 읽는 방식을 방관자 역할, 참여자 역할로 구분하였다.

- B: 반유토피아는,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정신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며, 지배계층이 그 권력을 유지함으로써 하층계급이 품을 수 있는 계급 간의 유동성에 대한 욕망은 애초에 제거된다.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히틀러가 파시즘을 이용해 제국주의를 건설하였다. 이를 투영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 C: 이 작품은 1932년에 쓰여진 작품이다. 이 소설 속에는 파시즘이 녹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적인 복종이 자리를 잡는 시기이다. 혼란스러움, 폭력적인 강요가 담겨있다.
- D: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을 통해 19세기에 꿈꿨던 유토피아는 송두리째 흔들려서 전쟁 이후 20세기 과학이 생명과학과 함께 사용되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이다.
- E: 1930년대,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확산되었다. 파시즘은 사회가 인간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그 불평등을 확신한다. 이성을 불신하고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인간의 일평생을 통제한다. ‘멋진 신세계’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마냥 판타지 소설이 아닌 것이다.

질문1에 대한 학생들의 대체적인 답변은 소설이 발표되었던 1930년대의 당대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이 직접 소설이 발표된 시대를 확인해봄으로써 텍스트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찾아낸 것이다.

『멋진 신세계』의 기본배경이 되고 있는 미래사회는 ‘보카노프스키법’이라고 하는 인공수정으로 탄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술도 고도로 발달된 사회이다.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과학기술 문명이 가진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이 소설을 읽게 된다. 하지만 소설이 쓰여지고 발표된 시대를 확인한 후 소설을 끝까지 읽고 난 후에는 초기와는 달리 다양한 주제를 추출해 내고 있다. 즉 시대적 상황을 통해 텍스트 안에 숨어 있는 역사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질문1은 사회적 관점에 입각한 질문 중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고전으로서 텍스트 읽기를 할 때 가장 중시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현재

적 읽기'이다. 시간이 흘러도 현재적 가치를 담지한 책이 고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전의 현재적 읽기는 텍스트가 가진 '사이' 읽기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2와 질문3이 제기된다.

다음은 질문2에 대한 학생들의 결과이다.

- A: 알파, 베타, 앱실론 등의 계급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모습이 현대 사회와 닮아있다. 정해진 계급은 없지만 각자의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계급을 나누는 현대 사회가 미래에는 소셜 속 사회처럼 변질될 수도 있을 것 같다.
- B: 여성민우회에서 “대리모, 인공수정 등의 실험으로 여성의 몸이 기술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즉 현대사회는 소셜 속 사회와 마찬가지로 과학의 진보로 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파괴되고 인간을 인공적으로 또 비윤리적으로 배양하는 모습들이 닮았다.
- C: 소셜 속에서는 어머니의 배에서 자라나고 직접 출산하여 아기를 낳지 않고 인공배양을 통하여 아기를 만든다. 우리 사회에서도 수정관 아기와 같이 인공적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닮아 있다.
- D: 닮아있다. 기계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또한 과학문명에 도태된 사람들 누구든지 이방인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컴맹인 사람들이 쉽게 취직할 수 없는 것이다.
- E: 닮아 있다. 정신적인 사랑보다 육체적인 사랑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성매매 또는 원나잇 같은 행위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다. 서양에서는 섹스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때 재밌는 사실은 실제 현재(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일어난 이슈를 텍스트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기계문명이 발달했을 때 나타날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래에서나 일어날 상

상 속 일이 아닌 인공수정과 관련된 사항이 현재에도 문제시 되고 있음을 제기(학생 C)하는 게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로 계급화 되는 현재의 사회에서 텍스트와의 공통점을 찾거나(학생 C), 『멋진 신세계』 사람들의 연애의 모습에서 현재와의 공통점을 찾는(학생 E) 등 다양하게 텍스트와 현재의 시간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질문3에 대한 학생들의 결과를 보자.

- A: 인간이 무시되고 멸시되는 사회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도덕적, 사회적인 규범이나 틀을 만들어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우리는 각자 진정한 자유와 이상적인 삶의 형태에 대해 고뇌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 B: 어떤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우리사회에서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지배계급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는 안정과 과학의 진보를 그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과학의 진보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론이 활성화 되어서, 대부분이 공감할만한 합리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C: 우리사회에서는 미래의 사회안정을 위하여 기술 개방을 촉진하며 과학적 진보를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멋진신세계처럼 자유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찍어낸 듯 무수히 같은 인간들만이 존엄성을 잃고 노예화되어버릴 것이다. 과학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 D: 도태되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 같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문화를 정부에서 교육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개인적으로 늦지 않게 배워보려는 시도도 잊지 말아야 한다.
- E: 모든 일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즉

사랑, 출산, 감정의 동요 등은 소중하고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맹목적인 지식교육보다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마다 특징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저자의 윤리적 관점을 드러낸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존 세비지’를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설 『멋진 신세계』의 핵심적 장면 중 하나인 존과 총통의 대화는 소설이 결국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하지만 소설을 텍스트로서 바라볼 때 그 장면이 가진 의미 해석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B, D, E의 경우는 텍스트로서 『멋진 신세계』를 읽었을 때 도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텍스트 만들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후 교수자는 위에 도출된 사고과정을 통해 비판적 수용자로서 학생들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V. 질문법을 활용한 텍스트 읽기 교육의 효과

3, 4장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위한 질문지를 실제 수업에 적용시킨 결과를 분석하였다. 질문지를 통한 읽기 교육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이를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지를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은 텍스트를 읽고 질문지에 답을 함으로써 텍스트를 분석하는 행위 자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나머지 6명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설문1)에 비해 ‘①그렇다’에 응답한 학생 수가 적었지만, ‘③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질문지는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설문3)은 질문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질문에 답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이해됐다’, ‘힘들긴 했지만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냥 책만 읽는 것보다는 좋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반면, ‘형식보다 내용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는 형식적 관점보다 내용적 관점에 따른 질문지가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텍스트를 읽고 사고를 확장하여 글쓰기로 나아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상 텍스트의 ‘내용’과 더 큰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형식 보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응답이었다.

물론, 이러한 설문 조사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그러나 질문법이 가지는 읽기 상황 제시는 객관적인 성과의 지표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읽기를 통한 사고의 환경을 제시하고 쓰기로까지 스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에 있다. 그렇게 생성된 사고의 결과물은 텍스트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텍스트와 다르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이번 논문을 통해 텍스트를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형식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으로 나누어 질문지를 만든 후 학생들에게 적용해보았다.

우리는 텍스트 분석을 위한 질문지를 행한 학생들에게 쓰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도 진행하였다.

<p>&lt;쓰기와 관련된 질문: 쓰기와 연관&gt;</p> <p>3. 내용적 관점에 따른 질문지와 글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p> <p>(3-1) 내용적 관점에 따른 질문지는 글의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p> <p>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p> <p>(3-2) 내용적 관점에 따른 질문지는 글의 논거(혹은 소재)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p> <p>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p> <p>4. 형식적 관점에 따른 질문지와 글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p> <p>(4-1) 형식적 관점에 따른 질문지는 글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p> <p>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p> <p>(4-2) 형식적 관점에 따른 질문지는 글의 조직방식이나 문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p> <p>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p>	
--	--

설문의 기본 방향은 ①내용적 관점은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②형식적 관점은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제시한 설문지와 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설문3: 내용적 관점		설문4: 형식적 관점	
	설문3-1	설문3-2	설문4-1	설문4-2
① 그렇다	100% (119/119)	100% (119/119)	65.5% (78/119)	56.3% (67/119)
② 보통이다	0%(0/119)	0%(0/119)	34.5% (41/119)	43.7% (52/119)
③ 그렇지 않다	0%(0/119)	0%(0/119)	0%(0/119)	0%(0/119)

읽기를 쓰기와 연계하고자 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활용범위는 우선 주제설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를 (설문3)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119명 모두가 주제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글쓰기의 시작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쓸 것인가와 관련한 부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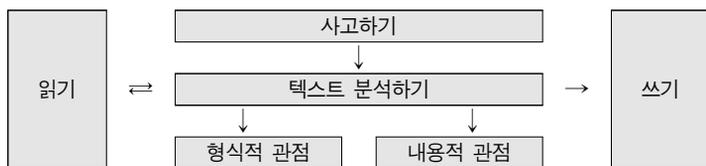
이에 반해 (설문4)의 결과는 내용적 관점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설문4-1)은 119명 중 78명만이 ‘①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41명은 ‘②보통이다’라고 대답했으며, (설문4-2)는 119명 중 67명 ‘①그렇다’고 응답했으며 52명은 ‘②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글의 분위기라든가 문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글쓰기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형식적 관점 질문지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지가 쓰기에 연계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질문지를 쓰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②질문지에서 도출된 사고의 흐름은 글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또 하나의 텍스트를 도출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은 후속 연구로 남겨 두겠다.

## VI. 결론

본고는 읽기 교육의 한 방법으로 ‘질문법’을 통한 텍스트 분석을 제안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텍스트를 접하면서 개별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다. 본고에서 제시된 질문법들은 텍스트를 읽고 사고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화하고 내면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 교육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새로운 텍스트 만들기, 즉 ‘쓰기’ 행

위에 있다.



본고가 제시한 읽기 방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읽기’의 과정이 ‘사고하기’의 과정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글쓰기는 어떤 대상이나 내용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주어진 과제를 새롭게 구성하는 복잡한 사고과정이다. 즉 글쓰기는 단지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글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만 보지 않고 작가와 독자 간의 대화 및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읽기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지식기반이라는 점에서 사고하기의 핵심적 영역이다.

읽기 자료가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읽기 자료가 분석대상으로서의 텍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자가 읽기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사고하기의 과정을 통해 읽기 자료가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학생들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읽기 자료를 분석해서 사고의 대상인 텍스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2015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1년의 과정 동안 ‘질문법’이라는 읽기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앞 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질문지에서 도출된 사고의 흐름을 ‘쓰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여 또 하나의 텍스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본고가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다.

## 【참고문헌】

- 고영진, 「대학 작문교육의 외연 확장을 위한 비평적 읽기의 제안」, 『인문학연구』 9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pp.29-56.
- 김경훤 · 김미란 · 김성수, 『창의적 사고 소통의 글쓰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김미란, 「대학의 읽기-쓰기 교육과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텍스트적, 수사학적, 담론적 수준의 통합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pp.403-438.
- \_\_\_\_\_, 「다섯가지 텍스트 해석 방법을 활용한 읽기 중심 교육 모형의 개발」, 『대학작문』 5, 대학작문학회, 2012, pp.67-103.
- 김정녀, 「대학읽기 · 쓰기 통합 교육의 실제와 교육 방안」, 『한민족문화연구』 44, 한민족문화학회, pp.447-486.
- 김양선,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 연구」, 『인문과학연구』 2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김연주, 「읽기와 쓰기의 통합 모형 연구-〈명저읽기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pp.461-482.
- 린다 플라워, 원진숙 · 황정연 옮김, 『글쓰기 문체해결전략』, 동문선, 1998.
- 김원준, 「읽기 · 토론 · 쓰기 통합 교육의 효율성 재고-‘명저읽기와 글쓰기’ 강좌를 통해서」,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pp.523-548.
- 박준범 · 김정화, 「글쓰기의 관점에서 본 ‘읽기 쓰기 통합 교육’의 실제와 향방 - 영남대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6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pp.215-250.
- 변혜경 · 김명순, 「텍스트성을 활용한 텍스트 충실히 읽기 지도의 가능성과 의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pp.415-440.
- 윤재연, 「대학 글쓰기에서의 읽기와 쓰기 통합 방안 모색 - 설득 텍스트의 읽기-쓰기 통합 지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pp.113-144.
- 정인모 · 허남영, 「고전읽기를 활용한 수업 모형」, 『교양교육연구』 7-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pp.41-47.
- 정희모,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 『대학작문』 창간호, 대학작문학회, 2010, pp.41-9968.

최인자, 『디지털 시대, 문학 고전 읽기 방식-고전 변용 텍스트의 상호매체적, 상호문화적 읽기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9, 한국독서학회, 2008, pp.97-129.

허남영·정인모, 『<고전읽기와 토론> 강좌에서의 읽기모형 개선 방안』, 『교양교육연구』 8-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pp.529-557.

John Peters, "Five Ways of Interpreting a Text", *The Elements of Critical Reading*, Macmillan Coll Div, 1991.

Pichert, J. W., & Anderson, R. Cl., "Taking different perspectives on a st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1977.

**Abstract**

Text Reading Education Using 'Question Method'  
- Focusing on Cases of Yeungnam University  
〈Reading Masterpieces and Writing〉 -

Bae, Hye-jin · Son, Mi-ran

Writing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is focused on reading. Writing education in universities varies depending on specific purposes, but it mainly aims to develop a critical and logical thinking ability through text 'reading' and to improve an ability to express this newly(represented by 'wri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able students to reinterpret texts, which are classified into masterpieces, as modern values by themselves and write new articles, based on their reinterpretations, after reading <Reading Masterpieces and Writing> of Yeungnam University and comprehending it.

It is impossible that reading is entirely done by students and only writing is emphasized in university writing lectures. Instructors need to help students read texts and think by themselves by excluding their view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a class module for students to read texts and think by themselves at the reading stage. The primary text as a printed medium appointed here is a 'novel'. Novel, one of literary modes, is a text formed by a combination of an actual event and a fictional event.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module of reading education through text analysis', based on the reading cases that students performed after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hat were formed from diverse perspectives.

Key Word : TEXT Analysis, Reading, Reading-Writing Integrated Education, Five Ways of Interpreting a Text, Question

배혜진

소속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강사

전자우편 : baehj33@naver.com

손미란

소속 : 진주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전자우편 : sfefs1004@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

